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1 공통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출제의도

최초의 ‘술’은 B.C 16,000년 전에 등장했다고 한다. 술의 역사와 인류 역사는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각 문화마다 국가마다 자연상태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술 소비국으로 국민의 술 소비량도 늘고, 관련 산업도 성장세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인당 연간 술 소비량(6.2ℓ)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2.3ℓ를 소비하며 이에 따라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잡코리아’ 통계에는 직장인들 93%가 술을 마시며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한다.

술은 담배와 함께 기호식품으로 과도한 음주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와 함께 유통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아래 관리되고 규제되는 흡연에 비해 술은 규제가 적어지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면수심의 범죄자가 음주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이유로 감형받은 사례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술’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지나친 관대함이 어디까지 이해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광기의 신이라고도 한다. 술에 취해 흥분해 자신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이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상하면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적 도취와 광기는 일상과 상식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정점에서 모든 의식과 인식의 한계를 벗어 버리게 한다. 자신을 에워싸고 구속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디오니소스로 대변되는 술의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금주령을 실시한 미국은 "숭고한 동기와 원대한 목적을 지닌 위대한 사회경제적 실험"이라며 자부했지만 이로 인해 미국은 범죄의 소굴로 전락하게 된다. 개인의 사적인 도덕성이나 습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술이 인간 문화의 중요한 축임을 깨닫게 한 역사적 사례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대학가 축제에서 캠퍼스 내 주류반입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일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음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라는 목소리와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까지 반응이 뜨겁다. 물론 고교생에게 음주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의 음주뿐만 아니라 판매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논술에서 이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술’만큼 할 말이 많은 소재도 없다. 과도한 음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술의 부정적 이면에는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 추구, 일탈행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술이 좋다 싫다의 문제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술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제시문 분석

(가)

인간에게 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 겨울 어두운 밤에 거행되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술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취와 광기에 빠지게 한다. 술의 기능 중 으뜸가는 기능은 취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고 취하는 목적은 이성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술은 현실의 고통과 번뇌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고마운 벗이다.

초창기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노예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디오니소스를 삶의 은인으로 여기고 열렬히 추종한 것이다.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을 마이나데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광기(狂氣)를 뜻하는 영어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집을 버리고 무리를 지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도취의 상태에서 약간 집회를 가지는데, 지팡이를 광적으로 흔들고 팀파논이라는 작은 북을 미친듯이 쳐댔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한을 토해내듯 발악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춘다. 하지만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뜻하는 바는 단지 도취에 빠지고 동물적 본능이나 분출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도취된 상태는 흔히 인간의 예술적 창조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제시문 (가)는 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다는 것, 술에 취한 광란의 춤이 그들의 한을 분출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상태가 인간의 예술적 창조력의 원동력이라고 한 것에서 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읽어낼 수 있다.

(나)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주법을 실행에 옮겨본 나라다. 19세기 말부터 기독교계의 금주 주장을 일부 주가 수용한 후 점차 분위기가 확산되더니 급기야 1920년에는 전국적인 금주법을 제정해 10년 넘게 운용했다. 그러나 이 금주법은 미국 사회에 더 큰 후유증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위안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밀주에 매달리게 됐고 결국 ‘금주법 위반자’라는 수많은 위법자만 양산했다. 마피아같은 범죄집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 급속히 세력을 신장해 나갔다. 은밀하게 술이 제조되고 검증 없이 유통되다 보니 형편없는 질의 술이 판을 쳤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상해 사망률도 높아졌다.

술이 없으면 천국이 구현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술이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암흑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1932년 금주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하는 날, 많은 미국인들이 식민 상태에서 독립을 얻은 것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풍선을 누르면 압력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다시 튀어 나온다. 인간의 욕망도 누르면 다른 식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 술 취한 사회보다 술 없는 사회가 도덕적 우위에 선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인간은 도덕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다. 어떤 때는 제 정신을 차리고 매진하다가도 어떤 때는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인지도 모른다. 도덕적 규범이 가장 요구되는 가톨릭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로 끝난 사례를 근거로 술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는 창구로 술의 기능하다는 것을 파악하면 된다. 술에 취해 늘어지는 것이

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가톨릭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것은 덜 중시되는 욕망을 분출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풍선을 누르면 압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튀어 나오는 것처럼 술을 금지하면 술로 해소되는 부정적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된다. 즉 술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부정적 욕구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던 말이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던 말이요?”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저… 첫째는 환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췄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苦笑)한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환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흘려 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잇게 맨드는 것을 나는 취(取)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조(語調)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아, 유위유망(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하고, 긴 한숨을 내어준다. 물큰물큰한 술냄새가 방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흥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환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요.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요.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어나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허, 기막혀. 그 한 분자(分子)된 이상에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어라 할까… 저 우리 조선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요.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들이 못되어, 단 이들이 못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 올라오고…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다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 제시문 (다)는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의 한 장면이다. 만취해 귀가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투정한다. 남편은 무엇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는지 아내에게 물어본다. 아내는 하이칼라와 핫병이라고 답하지만, 남편은 둘 다 답이 아니라고 한다. 남편은 조선 사회가 자신에게 술을 권한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사회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요릿집 정도로만 생각한다. 일제의 탄압 밑에서 많은 애국적 지성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락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술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일제 시대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무기력함, 암울함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몸이 힘든 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맨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암울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주정꾼이 되었다는 것에서 술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 문화가 대단히 고상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어 왔다. 술을 음식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음식물로 인정한 우리 민족은 술 자체를 숭상할 뿐 아니라 술에 따른 그릇까지도 중시하여 특별하게 제작하였다. 술 마시는 예절을 소학에서 가르침으로써 누구나 술 마시는 범절이 깎듯하였으며, 술을 먹는 모임에는 모름지기 노래와 춤과 시조를 곁들임으로써 운치를 돋우어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술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주량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명심했다. 성인례를 치른 성인에게만 술을 권했다. 즉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나 체력이 강건한 사람만이 술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임을 뜻한다. 체력이 나약한 미성년이나 지각이 흐린 정신박약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음주전통이 곧 술을 대단히 고귀한 음식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남으로부터 ‘술을 대접받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한 인격자임을 뜻하게 되어 영광이 되었던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우리 나라의 음주 전통을 설명하는 『정통가정의례』에서 발췌하였다. 우리 민족이 술을 음식 가운데 고귀한 음식물로 인식하며 술 자체를 숭상하며 그릇이나 술 마시는 예절을 깎듯하게 가르쳤으며 술을 마실 때 노래와 춤과 시조를 곁들이는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를 즐겨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므로 자제력과 체력을 갖춘 성인에게만 술을 권하였고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 사회적인 차원에서 규제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술 마시는 예의 범절과 절제를 강조하는 음주전통으로 술을 대접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한 인격자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통해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대했음을 파악하면 된다.

(마)

대체로 중국에서는 술 마시는 법이 매우 조출하여,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반드시 데워 마시고, 비록 소주라도 역시 데워 마신다. 술잔은 은행 크기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이에 대고 조금 빨아 마시고 남겨서 도로 탁자에 놓았다가 잠시 후에 또 마시곤 하여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일이 없다. 이른바 속되게 주발, 대접 따위로 마시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

(중략)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하에서 가장 독한 술을 마시고, 소위 술집이란 모두 향아리 창에 새끼 문짝의 초라한 집인데, 길 왼쪽 조그만 헐문에다가 새끼로 발을 만들어 드리우고, 헌 첻바퀴로 등을 만들어 단 집이면 틀림없이 술집이다. 우리 시인

들이 흔히 푸른 주기(酒旗)란 말을 쓰지마는 그것은 실재가 아니다. 우리나라 술집에는 일찍이 한 폭의 깃발도 용마루에 나부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주량이 대단하여, 반드시 커다란 주발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 가지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단숨에 마셔 버린다. 이것은 들이붓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취(雅趣)를 즐기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술을 마셨다 하면 반드시 취하고, 취하면 반드시 주정을 하고, 주정을 하면 반드시 치고 받아 싸움을 해서, 술집의 향아리와 그릇들을 모조리 걷어차고 부수고 한다. 그러니 소위 풍류(風流)의 모임이니 문아(文雅)의 모임이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도리어 여기서와 같은 음주를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이라고 비웃는다. 비록 이 곳의 술집을 압록강 동쪽(조선을 의미함)에 옮겨다 놓는다 하더라도 밤이 이슬해지기 전에 벌써 기구와 골동품을 두드려 부수고, 꽃을 꺾어 짓밟아 놓을 것이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라.

제시문 (마)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한 부분이다. <열하일기>는 익히 알려진 대로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기행문인데, 제시문은 그 중 조선의 음주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여기’는 청나라를 의미하는데, 저자는 청의 소박한 음주문화,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술을 들이붓는 식으로 마시며 풍류는커녕 배불리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시며 주정을 하고 반드시 싸움을 벌이고 술집의 물건을 깨부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며 비판한다. 특히 술집을 설명할 때 ‘새끼 문작의 초라한 집, 헌 첻바퀴로 등을 만들어 단 집’ 이라고 하는데 가난이 찌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가난함에도 술만은 커다란 주발에 가득 따라 단숨에 마시는 조선의 음주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 문항 해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남편의 심리’를 분석하시오. (40점, 500~700자)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다)의 ‘남편의 심리’를 분석해야 한다. 기준점이 되는 제시문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제시문이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목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안작성의 포인트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어떤 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파악한 후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표현력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먼저 (가)에서는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다는 것, 술에 취한 광란의 춤이 그들의 한을 분출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상태가 인간의 예술적 창조력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는 창구로 술이 기능한다는 것, 술을 금지하면 술로써 해결되는 부정적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미국의 금주법 시행의 실패를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두 제시문의 논지를 정리할 때 ‘공통점’에 주목하여 제시문 (가)와 (나)는 술의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제시문 (다)의 남편이 왜 술을 마시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설에서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는 이유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맨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고 암울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현실을 잊기 위한 목적, 즉 취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일제의 탄압 밑에서 조선의 수많은 애국적 지성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 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락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술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할 뿐이다. 몸이 힘든 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맨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암울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주정꾼이 되었다는 것에서 술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남편은 어쩌면 제시문 (가)에서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여신도와 같은 심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할 수 있다. (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술에 취해 광란에 휩싸여 춤판을 벌이며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나)에서는 술을 통해 억압된 욕구가 분출 된다고 하는데, (다)에서 남편이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잊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의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마시는 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남편은 그 심정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 술에 취한 광란의 춤이 그들의 한을 분출하는 행위이고 이는 인간의 예술적 창조력의 원동력이며 부정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사회의 안정, 질서를 도모한다는 술의 긍정적인 기능이 (다)의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심리를 분석’ 할 때 이러한 차이점에 입각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회때문, 암울한 현실을 잊고 싶어서라는 것은 소설 상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술을 마시는 이유와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아래 <보기>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단,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을 반드시 포함할 것. (60점, 800~1,000자)

<보기>
최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음주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랜 시간 대학 축제 문화로 자리잡은 주점을 없애겠다는 것이 주세법 카드를 들고 나온 교육부의 의지이다.

논술문제에서 자기 견해를 서술할 때에는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제와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제이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제시문들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 정확한 제시문 독해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제시문이 어떠한 논리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제시문들의 핵심논지를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라)와 (마)를 활용하여 <보기>의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제시문 (라)와 (마)의 핵심내용이 어떠한 논리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라)는 우리 민족의 음주 전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제시문 (마)에서는 조선 사람들의 음주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제시문이 한국사람들의 음주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견해를 서술할 때 한 입장을 선택하여 논지를 전개하면 된다.

<보기>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다. 걸으로는 주류세 위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크고 작은 음주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그리고 대학 축제에서의 주점이 이러한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여 주류세 카드로 주점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한다면 제시문 (마)를, 반대한다면 제시문 (라)를 선택하여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문제에서는 예상반론과 재반박을 포함하라고 논제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제시문과 상반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예상 반론을 서술하고 재반박해야 한다. 따라서 제시문 (라)를 선택하여 견해를 서술할 때에는 예상반론이 (마)의 논지에서 제기될 수 있고, 제시문 (마)를 선택하여 견해를 서술할 때에는 (라)의 논지에서 제기될 수 있다. 재반박할 때에는 제시문 (라), (마)에 한정하지 않고 함께 등장한 다른 제시문들의 논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논술’은 전체 제시문과 논제가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논제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제시문이라도 논의 전개 상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단, 제시문들의 주제 범주를 벗어난 내용서술은 논지이탈일 뿐으로 감점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논제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가능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재반박하는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심층적인 논의 전개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논제에서 직접적 명시 여부와 별개로 ‘견해’나 ‘대안’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주장-근거-예상반론-재반박’의 논의 전개에 주목하길 바란다.

■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는 술의 의미를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먼저 (가)에서는 술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력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억압된 욕망을 분출하는 창구로 술이 기능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미국의 금주법 실패를 예로 들며 술을 금지하면 술로써 해결되는 부정적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다)의 남편' 이 매일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는 이유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맨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고 암울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몸이 힘든 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맨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암울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 주정꾼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남편은 (가)의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여신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마시는 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암울한 사회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이해되지만 현실을 잊기 위해, 그저 취할 목적으로만 술을 마시는 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다. 이는 술이 창조력의 원동력이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는 긍정적 기능에 위배된다.

(646자)

[문제 2]

● 제시문 (라) 선택 시 : 술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교육부의 입장' 을 비판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주류세 위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크고 작은 음주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그리고 대학 축제에서의 주점이 이러한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여 주류세 카드로 주점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의 축제 문화를 경직시키고 대학생들의 도덕성과 사적인 삶을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시문 (라)에서 우리 민족은 술을 음식 가운데 고귀한 음식물로 인식하며 술 자체를 숭상하며 그릇이나 술 마시는 예절을 깎듯하게 가르쳤으며 술을 마실 때 노래와 춤과 시조를 곁들이는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 를 즐겨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즐겁고 신나야 할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풍류를 즐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

물론 지나친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제력을 상실케 한다. 제시문 (마)에서 지적하듯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술을 들이붓는 식으로 마시며 취할 때까지 마시며 주정을 하고 반드시 싸움을 벌이고 술집의 물건을 깨부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는 풍류는커녕 주폭일 뿐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주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규제되는 문제가 아니다. 풍선을 누르면 압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튀어 나오는 것처럼 술을 금지하면 술로 해소되는 부정적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분출된다. 미국이 금주법을 실시한 결과 음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도리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문제는

바람직한 음주 문화를 정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한 ‘성인’ 이나 ‘지성인’ 으로서 스스로 술 마시는 예의 범절과 절제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886자)

● 제시문 (마) 선택 시 : 술의 부정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교육부의 입장’ 을 옹호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주류세 위반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크고 작은 음주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대학 축제에서의 주점이 이러한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여 주류세 카드로 주점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생 음주 사망 사고나 셀 수 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된다. (마)에서 언급하고 있듯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폭음은 심각하다. 술을 들이붓는 식으로 취할 때까지 마시며 주정을 하고 반드시 싸움을 벌이고 술집의 물건을 깨부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풍류는커녕 주폭일 뿐이다. 따라서 대학 축제에서 주점을 금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의 축제 문화를 경직시키고 대학생들의 도덕성과 사적인 삶을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즐겁고 신나야 할 축제에서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 를 즐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미국이 금주법을 실시한 결과 음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도리어 범죄의 온상이 된 것처럼 음주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사고가 해결되지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나친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풍류를 즐길 틈이 없다.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친다. 실제로 대학 축제 시기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상해, (성)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 스스로의 절제나 자제에 기댈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규제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904자)

■ 관련읽기자료

김원익, 『신화, 인간을 말하다』

해체와 자유를 향한 디오니소스의 광기

그리스 신화에는 또 다른 종류의 창조적 광기가 있다. 바로 리오의 삼바 축제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광기이다. 부산 사람들이 〈부산갈매기〉를 부르며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할 때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는 광기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시청과 광화문을 붉은 물결의 도가니로 만들면서 우리도 경험했던 광기이다. 개체가 해체되고 전체에 흡수된 채 모두가 하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광기이다.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대변하는 광기이다. 디오니소스를 광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그러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뜻하는 바는 단지 도취에 빠져 동물적 본능이나 분출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의 참된 의미는 창조성에 있다. 창조력이 결여된 도취는 광기가 아니라 객기,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갈 뿐이다. 디오니소스적 도취와 광기는 일상과 상식의 장막을 걷어내고 망아의 상태로 돌아간 뒤, 그 정점에서 모든 의식과 인식의 한계를 벗어 버리게 한다. 자신을 에워싸고 구속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올림포스 신이다. 세멜레가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투의 화신 헤라가 그녀의 어렸을 적 유모로 변신해서 세멜레를 찾아가 꼬드겼다. 사랑하는 분이 제우스 신이 아닐지 모르니 그에게 하늘에서 입는 옷을 입고 오라고 간청해 보라는 것이었다. 헤라가 돌아가고 밤이 되어 제우스 신이 찾아오자 세멜레는 부탁 하나만 들어 달라며 애교를 떨었다. 그녀는 용의주도하게도 제우스에게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하게 한 다음 불쑥 하늘에서 집무를 볼 때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니콜라 푸쟁, <관신 흉상 앞에서의 디오니소스 축제> 1634경

제우스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스틱스 강에 맹세한 이상 그도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세멜레는 제우스를 보자 옷에서 뿜어 나오는 섬광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불타 죽고 말았다. 제우스는 얼른 그녀의 몸속에 있던 6개월도 채 안 된 핏덩이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를 가르고 집어넣었다. 석 달 뒤 제우스가 다시 허벅지를 가르고 꺼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였다. 제우스의 허벅지가 현대의 인큐베이터였던 셈이다. 아테나가 태어날 때도 제우스의 머리가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는가?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그리스인들이 숭상하는 대표적인 신은 이성과 절제의 신 아폴론이었다. 도취와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인들에게는 낯선 신이었으며 더구나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특이한 신분 탓에 가장 늦게 올림포스 12신의 반열에 오른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바코스의 여신도들》에서는 소아시아의 니사 산에서 자란 디오니소스가 사람들에게 포도 생산법과 포도주 제조법 전수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면서 고향인 그리스 본토의 테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박해와 극복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성과 절제의 나라 테베를 통치하는 펜테우스는 도취와 광기의 전도사 디오니소스와 신도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다가 과멸을 맞는다. 디오니소스와 여신도들은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베를 광기에 빠뜨려 아들 펜테우스를 디오니소스 축제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갈가리 찢어 죽이게 함으로써 처절하게 복수한다. 트라키아의 왕 리쿠르고스도 디오니소스를 박해하다가 과탄에 빠진 인물이다. 그는 디오니소스의 신도들을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는 디오니소스에 의해 광기에 빠진 백성들의 손으로 말에 묶여 사지가 여덟 조각으로 찢겨 죽는다.

초창기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주로 여성들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노예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디오니소스를 삶의 은인으로 여기고 열렬히 추종했던 것이다.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은 ‘마이나데스’ 라고 불렀는데 이는 ‘미친 여자들’ 이란 뜻이다. 그것은 ‘광기’를 뜻하는 영어 ‘madness’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들은 집을 버리고 무리를 지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다. 또 술을 마시고 도취의 상태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횃불과 디오니소스의 지팡이 티르소스를 광적으로 흔들고 팀파논이라는 작은 북을 열정적으로 쳐댄다. 이어 마음속의 모든 한을 토해내듯 발악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춘다. 극단적인 광기의 폭발이었다. 디오니소스의 별명 ‘브로미오스’는 ‘미쳐 날뛰는 자’라는 뜻이다.

마이나데스는 축제의 막바지에 이르러 황홀경에 빠져서 대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산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 미친 듯이 살과 피를 먹어치운다. 때로는 소년이 제물로 바쳐지기도 한다. 그러고는 무아경의 절정에서 탈진할 때까지 춤을 추다가 쓰러진다. 이들이 맛보려는 것은 죽음이요, 탈 한계이다. 죽음은 자연으로부터 이탈한 개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자연의 도도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한창조와 영원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술이 시인과 예술가의 영원한 벗인지도 모르겠다.

디오니소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신이다. 아폴론의 이성은 조형의지다. 그것은 일정한 형식과 틀을 형성한다. 과도함을 거부한다. 무엇이든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 아폴론의 이성은 항상 절제된 세계를 지향한다. 이에 비해 디오니소스의 창조적 광기는 해체의지요, 자유의지다. 그것은 아폴론의 이성이 형성한 형식과 틀을 깨뜨리고 찢어 버린다. 무한과 극한의 세계로 휘몰아친다. 아폴론의 이성이 빠져들 수 있는 박제화와 도식화를 과감하게 무너뜨린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조형예술로 대표되는 아폴론적 예술과, 음악으로 대표되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대립과 투쟁, 균형과 조화 속에서 예술의 정수인 그리스 비극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 비극 속에서는 ‘아폴론적인 것’ 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라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다투는 듯 화합하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금주법, ‘법의 실패’

강신업(변호사/ 정치평론)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입법 목적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법이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곳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 이 경우 법을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를 가리켜 ‘법의 실패’ 라고 부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법의 실패는 미국의 금주법이다. 1920년부터 시행된 금주법은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금주법은 1933년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부정적 효과는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금주법 실험은 사실 매우 고상한 실험이었지만 현실을 간과한 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생체기만 남기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입법자들은 금주법을 통해 술에 의한 타락을 막고 사회를 보다 경건하게 하길 바랐지만, 이 법은 오히려 미국 사회를 갖가지 부패와 범죄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금주법은 초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부족한 곡물의 전용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단 금주운동이 시작되자 점차 사회·문화적 움직임에 편승해 운동의 목적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다. 술에 근본적 거부감을 갖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급격한 도시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금주법을 지지하고 나섰고, 나중에는 반이민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까지 가세했다. 결국에는 경건한 삶과 사회정화가 금주법의 입법목적이 된 가운데 1919년 10월 28일 볼스태드 법으로 알려진 전국금주법(National Prohibition Act)이 제정되고 이듬해 발효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음주는 불법이 되었다.

금주법이 시행되는 동안 미국에선 폭력과 범죄가 대폭 늘어났다. 살인은 78%까지 늘어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도 81%까지 증가했다. 음주 자체를 전면 금지한 까닭에 주류의 생산, 유통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없었고, 이 틈을 타 불법 주류 제조업자들이 독성이 강한 불순물을 첨가하면서 술이 전에 비해 50%나 독해졌다. 알코올 중독 비율이 4배 증가했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개인의 평균나이도 6개월이나 빨라졌다. 사람들이 마약을 알코올 대체제로 사용하면서 대마초, 아편, 코카인 등의 사용량도 늘어났다. 술의 가격이 급등했고 저질 술이나 가짜 술을 만들어 파는 일이 횡행하면서 서민들이 술을 마시다가 건강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속출했다.

술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큰 돈벌이가 되자 범죄조직들은 주류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알 카포네(1899~1947)라는 전설적인 이름의 갱단이 이 무렵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금주법 때문이었다. 범죄 조직들이 주류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통해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면서 스무 살에 불과한 알 카포네가 시카고 갱단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그는 매춘과 밀주, 도박장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1927년경 무려 1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금주법은 법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또 금주법은 법의 실패가 사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입법자는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법의 실패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법의 시행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금주법이 발효되고 미국인들은 경건한 삶을 강요당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범죄 발생과 공무원 등의 부패였다.

세상 일이 법으로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도대체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겠는가? 대중의 일시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도덕에 맡겨야 할 것까지 법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법을 통해 민간 부문에 적극 개입하고 이를 통해 문화·복지사회를 이루려 할 경우 생각지 못한 내외부의 장애요인을 만나 당초 기대했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황만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그래서 명언이다.

축제

축제는 개인 또는 집단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 받는다.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인 Festival 은 성일을 뜻하는 라틴어 Festivalis에 유래해 그 뿌리가 종교의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학에서는 축제를 뒤르켐적 모델, 프로이트적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뒤르켐 모델은 축제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종교적 형태"로 규정한다. 반면 프로이트 모델은 축제의 성격을 전도적, 비밀상적 성격으로 보고있다. 이는 축제가 통합과 질서의 유지보다는 '금기의 위반, 과도함과 난장뜨기'로 보는 것이다.

놀이로서의 축제

우리에게 놀이는 보통 비생산적인 것, 시간 낭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생각된다.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사회에서는 생산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놀이는 이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휴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뤘을 때 놀이는 이제 삶의 질을 측정해주는 요소로 생각 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선 무작정 앞만 보고 살기보단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새로운 덕목으로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축제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을 충족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놀이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축제는 그들의 기쁨, 즐거움 등의 욕구를 충족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느꼈던 긴장,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소에 해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놀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미래 공동체를 위한 문화 전승의 통로

현대 사회처럼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전통이 전승되기 쉽지 않다. 과거의 전통 문화는 날로 쇠퇴하고 있고 그저 기성세대, 노인들의 향수에 그치기 쉽다. 그러나 축제는 이미 생활에서 유리된 전통과 민속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승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된다. 특히 축제는 어려서부터 관습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식을 무의식속에 습득하고 정서적으로 동화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과 참여를 통해 직접 몸으로 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축제는 전통을 체험하게 해 과거의 시간을 살아보게 함으로서 조상의 지식을 엿 볼 수 있고 단절된 전통을 이어가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종교적 기능

축제를 뜻하는 Festival은 성일을 의미하는 라틴어 Festivals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축제는 그 뿌리가 종교 의례에 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의례는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접촉, 의사를 소통하

는 수단이다. 또한 의례를 놀이의 한 형태로 규정 기도 하는데 이때는 의례를 성스러운 놀이로 보기도 한다.

의례는 주기성과 기능에 맞추어 통과의례, 주기적 순환 의례, 위기 의례 등으로 구분된다. 통과의례는 출생, 죽음 등과 같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전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동을 위해 행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는 새로운 나의 탄생, 새로운 역할과 지위 부여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위기 의례는 질병, 자연재해등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하는 의례이며 주기성을 띠지 않는다. 이에 비해 주기적 순환 의례는 종교력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해지며 이러한 의례를 종교축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축제들은 흔히 신화적 사건들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신화적 이야기들의 효능을 지속시키고 극화하기 위해서이다.

사회 문화적 기능

축제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기능 또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공동체적 측면에서 사회의 기존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기능 중 첫 번째는 축제를 통해 사람들의 내재되어있던 일탈성을 난장적 의례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적 가치와 구조를 재강화하고 창조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난장적 의례란 카오스를 상징하는데 축제가 행해지는 기간엔 평소에 금지되었던 금기사항들이 허용, 역할 전도를 통한 평등주의, 성적인 농담 등 기존에는 할 수 없던 일탈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제의 난장적 의례는 기존 사회 질서체계의 억압적 요소들을 축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어 주기적으로 해소시켜준다. 그러나 이 의례를 하고 난 후에는 사회 질서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며 이를 통해 기존의 낡은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구축하며 집단의 특정 정서를 갱신하고 집단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킨다.

두 번째 기능은 축제가 집단의 가치와 이념을 표출,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축제는 흔히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이념, 그리고 가치 등을 표출해 집단의식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제는 집단 의식을 고취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